

# 기업대출, 대기업 줄고 中企 눈덩이

### 대기업 투자 축소로 사상 최저...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 광주·전남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 전년보다 18배 증가

장기 불황을 맞아 기업대출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은 투자 축소와 내부유보금 증가로 외부자금 수요가 줄어 은행 빚을 사상 최대규모로 줄였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은행대출도 부족해 제2금융권의 고리 자금을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말(12월 기준) 은행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대출금 잔액은 773조9604조원으로 1년 새 23조8565억원 늘었다.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따라 연간 증가 폭은 큰 폭으로 달라졌

다.

작년 증가 규모 23조8000억원은 2015년 증가 규모 49조999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0년(11조1234억원) 이후 6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이런 기업들의 은행 빚 증가세 둔화는 주로 대기업들이 주도했다.은행의 대기업 대출금은 작년 말 164조555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9315억원 줄었다.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빌렸던 돈을 갠아버렸다는 얘기다.

한편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은 역대 최대였던 2015년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지만,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작년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은 609조4049억원으로 1년 새 33조7880억원 늘면서 60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중소기업 대출금은 2013년 27조원이 늘었고 2014년 35조원, 2015년 54조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장기불황에 취약한 광주·전남 지역에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 예금은행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달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대출을 줄이면서 +1534억원에서 -2442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하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지난해 같은기간 2229억 감소했던 것에 비해 1367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49억원 보다 많은 884억원 늘었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자금조달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졌고 은행들이 신용도가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조이면서 지역 중소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역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대기업과 반대로 하락하고 자금조달 접근성도 악화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은행의 기업부실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업대출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이라며 "중간 등급의 신용 기업이나 담보가 부족한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91.06 (-4.35)
- ↑ 금리 (국고채 3년) 1.79% (+0.01)
- ↑ 코스닥 606.13 (+0.38)
- ↑ 환율 (USD) 1158.10원 (+12.60)



쏘렌토의 가솔린 모델. (기아차 제공)

## 기아차 쏰렌토 가솔린 출시

기아차는 9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쏰렌토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240마력에 최대토크 36.0kgf·m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세타II 2.0 T-GDi 엔진을 탑재했다.

기아차는 "SUV만의 넓은 공간·실용성과 함께 소음과 진동이 적은 차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인 '프레스티지'와 고급형 '노

블레스' 등 두 트립으로 운영된다. 터보 전용 앰블럼도 부착된다.

프레스티지 트립은 운전석 파워·통풍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 키, 2열 열선시트 등의 사양이 기본 적용됐다. 가격은 2.0 디젤 모델의 같은 트립보다 160만원 낮은 2825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아차는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중형 SUV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며 "강력한 동력성능과 정숙성을 겸비한 가솔린 터보 모델을 통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추억 쌓으세요”

보해, 이달말까지 무료 개방



보해양조씨는 '해남 보해매실농원'을 매화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개원 39주년을 맞은 보해매실농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매실농원으로 14만 평대지 위에 1만 4000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식재돼 있다. 특히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적절한 양의 해풍 등 최적의 매실 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과육이 단단하고, 풍부한 향과 신맛을 자랑한다.

보해양조씨는 매년 이 곳에서 수확한 최상급의 매실로 매추순을 비롯, 각종 매실 관련 식음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보해매실농원은 올해 만개 시기를 이달 20일 전후로 내다보고 있으며, 나들이객을 위해 매실 음료와 농축액 등을 전시, 판매할 계획이다. 문의 보해매실농원 061-532-4959. /최재호기자 lion@

## 對러시아 수출 '해빙무드'

경제 회복세에 지난해 1.8%증가...올 전망도 밝아

서방의 경제제재로 침체했던 러시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대(對) 러시아 수출도 증가로 바뀌었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러시아 교역액은 134억 달러로 전년보다 16.2% 감소했지만, 수출은 1.8% 늘면서 회복 조짐을 보였다.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본격화된 2015년 우리나라는 제재 불참국인데도 러시아 수출이 53.7% 급증했다. 이는 제재 참여국인 미국(-34.1%)이나 독일(-38.1%), 일본(-44.4%)보다도 큰 폭의 감소세

였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지만, 11월(0.9%)과 12월(1.8%) 회복세를 타면서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수출을 기록했다.

다만 수입은 전년보다 23.7% 감소한 86억 달러에 그쳐 전체 교역액의 감소를 주도했다.

올해는 러시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교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 광양항 물동량 이탈 가속화

1월 17만4000TEU...전년비 9.5% 감소

광양항의 1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월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 줄어든 17만4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 최근 청산한 한진해운 여파로 광양항에서 처리했던 환적화물 상당수가 이탈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1월 전국 무역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218만2000TEU를 기록했다. 부산항은 전

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162만4000TEU였다. 인천항은 중국 및 베트남 등의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 전년 동월 대비 16.0% 증가한 24만3000 TEU로 나타났다.

한편 광양항은 지난해 8월 발생한 한진사태와 이로 인한 얼라이언스(해운동맹) 구축이 어려워지면서 환적화물 처리량이 지난해 45만TEU에서 올해 35만TEU로 10만TEU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해 환적 물동량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도시개발구역 광주 11·전남 18곳

지난해 기준 301만여평

지난해 말(12월) 기준으로 광주·전남 지역 도시개발구역은 총 29곳에 달했으며 개발면적은 총 995만4000㎡(약 301만 1085평)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9일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2017년 2월)을 바탕으로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광주시는 11개로 시행주체별로 공공시행 9개(사업방식:수용사용 8, 환지 1), 민간시행 2개(사업방식:수용사용)였다. 전남도는 18개로 공공시행 11개(사업방식:수용사용 5, 환지 2, 환

용 3), 민간시행 7개(사업방식:수용사용 6, 환지 1)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 총 418곳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사업이 끝난 곳은 154곳(3700만㎡)이며 264곳(1억9000만㎡)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31곳이다. 2015년(30곳)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은 소폭 늘었지만 면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52곳) ▲경남(47곳) ▲경북(40곳) 순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광주·전남 '대중 무역 애로 신고센터' 운영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중국의 잇따른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광주전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대중 무역 애로 신고센터'를 긴급 설립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대중 무역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광주전남 기업들의 무역 및 서비스 애로사항을 관련 기관, 부처와 신속히 공유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

##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예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분양 모집중

상담 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